“실수 없는 시즌 보내겠다” KIA 최형우 명예회복 다짐

“지난해 약팀 아니었는데 자존심 구겨지는 시즌 보내…많이 뛰고 파”

최형우(36·KIA)가 올 시즌 자존심 회복을 다짐했다.

최형우를 비롯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은 31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다.

최형우는 지난해 143경기에 나와 타율 3할3푼9리 25홈런 103타점으로 자신의 몫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디펜딩챔피언'이었던 팀 성적이 5위에 그쳤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배해 아쉬움을 삼켰다.

최형우는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단 전체가 올해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떠나야할 것 같다. 지난해 우리팀이 약팀이 아니었는데 자존심이 살짝 구겨지는 시즌을 보냈다. 준비 철저히 잘해서 실수 안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최형우는 평소보다 빠르게 몸 만들게 돌입했다. 그는 "올해는 조금 빨리 시작했다. 12월 초부터 두 달 가까이 몸을 만들었다. 추운 곳에서 훈련을 해서 따뜻한 곳에서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스프링캠프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올해는 연습경기도 많이 나가고 많이 뛰고 싶다. 연습경기도 초반부터 나간다. 지난해에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캠프의 반을 쉬었는데, 올해는 허리도 아프지 않다"고 몸 상태를 자신했다.

비시즌 중점 사항에 대해서는 '순발력'을 들었다. 그는 "직구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어서 따라가기 위해서 순발력을 항상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타석이라도 대처를 잘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타율이 높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목표로는 '30홈런'을 내걸었다. 최형우는 입단 후 30홈런을 넘긴 것이 4시즌 있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시즌 연속 30홈런을 기록했지만, 최근 2년 동안은 25홈런 언저리에 그쳤다.

최형우는 "3할, 100타점은 그래도 꾸준히 했다. 30홈런을 꼭 해야겠다는 것이 아닌 작은 소망이다. 30홈런을 치다보면 우리 팀도 더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싶다"고 미소를 지었다.

홈런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지만, 올 시즌 KBO리그는 반발 계수를 낮춘 공인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최형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 타자들도 엄청 차이나게 기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바라봤다.

손흥민 3G 연속골…토트넘, 레스터 시티에 3-1 勝

아시안컵 복귀 후 3경기 연속 골맛…리그 11호·시즌 15호

오는 14일 도르트문트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10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레스터 시티와의 2018~2019 EPL 26라운드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2-1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에 골을 터뜨렸다. 3경기 연속 골이다.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온 손흥민이 복귀전이었던 지난달 31일 왓포드전과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 이어 또 골 사냥에 성공한 것이다.

리그 11호이자 시즌 15호골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비롯해 다빈손 산체스,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20승(6패 승점 60)째를 신고한 토트넘은 리버풀(승점 65), 맨체스터 시티(승점 62)에 이어 리그 3위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0-0으로 팽팽한 전반 14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해리 맥과이어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시뮬레이션 액션을 했다고 판단한 심판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면이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손흥민이 접촉한 뒤에 넘어진다. 접촉의 강도가 강하진 않았지만 페널티킥을 선언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러나 2-1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에 폭풍 질주에 이어 골을 터뜨리며 아쉬움을 달랬다.

무사 시소코가 수비 진영에서 걷어낸 것을 하프라인에서 잡아 거침없이 돌파한 후, 왼발 슛을 때려 레스터 시티의 골망을 흔들었다.

동점골을 노린 레스터 시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위협적인 역습이 가능했다.

토트넘은 전반 33분 산체스의 골과 후반 18분 에릭센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앞서나갔다. 후반 31분 제이미 바디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경기 막판 손흥민의 쐐기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14일 도르트문트(독일)을 상대로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른다.

뉴시스

“강정호, 2015년 이후 개막전 첫 로스터 진입?”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팀의 기대에 부응하며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11일(한국시간) 피츠버그의 2019시즌 개막전 로스터를 예상했다. 우여곡절 끝에 빅리그로 돌아온 강정호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2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팀에 미칠 영향력을 믿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라고 특기했다.

강정호는 콜린 모란과 함께 3루수에 이름을 올렸다. "강정호와 모란의 출전 시간이 어떻게 나뉠 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지켜봐야 한다"며 "강정호는 2015~2016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모란은 더 강력한 파워와 한 박자 빠른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짚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전 3루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스프링캠프에서 모란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다.

강정호는 지난해 11월 피츠버그와 최대 550만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연봉 300만달러에 보너스 250만달러가 포함된 1년 계약이다.

피츠버그는 2015~2016년 팀의 중심타자로 활약한 강정호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강정호는 빅리그 데뷔 첫 해인 2015년 126경기에서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103경기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을 올렸다.

하지만 2016년 12월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2017년을 통째로 쉬었다. 지난해 4월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강정호는 지난해 8월 손목 부상으로 수술과 재활을 거친 뒤 정규리그 막판 메이저리그 3경기에만 나섰다.

뉴시스

신치용 국가대표 선수촌장 “합숙 폐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신치용(64) 신임 진천선수촌장이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존중하는 선수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신치용 진천선수촌장은 11일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혔다.

지난 7일 정식 취임한 신 선수촌장은 1995년부터 20년 동안 삼성화재를 이끌며 슈퍼리그 8연패, 프로배구 V리그 8회 우승 등을 달성한 명장이다. 국가대표팀에서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임원,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내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다.

감독 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삼성화재 블루팡스 단장, 제일기획 스포츠구단 운영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력도 쌓았다.

최근 선수촌 내 일탈 행위 및 지도자의 선수 폭력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른 대한체육회는 '해결사'로 신 선수촌장을 낙점했다.

신 선수촌장은 "엘리트 체육이 힘든 시기다. 선수촌에서도 최근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서 "폭력 등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선수촌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반드시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강조한 부분은 선수-지도자 간의 존중이다. "선수들이 편안하게 훈련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비위 근절 대책으로 내세운 생활체육 중심 기조 및 합숙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한다"면서도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합동, 합숙 훈련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합숙이라는 단어는 가두고 억압하는 느낌"이라면서 "선수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도자들의 훈련 방식에도 메스를 댄다. "지도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재고해야할 것 같다. 규정만 적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인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면서 "지금 선수단의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있다. 사기가 무척 중요하다. 이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이다.